

# 3만수 계약사육으로 고수익 올린다

□ 취재/이영오 기자



△ 1회전에 3만수를 계약사육하고 있는 장곡농장 이부환 사장

'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일단 타결되어 지난 2월 15일 국별 이행 계획서를 GATT에 제출키로 하였으나 상대국의 동정을 살피느라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는 있지만 양계산물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대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여 '95년부터 부분적으로 수입이 가시 회됨에 따라 양계인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국내 육계업은 열악한 환경 조건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하거나 일괄 생산체제로 나가기위해 계

열화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생산비절감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볼때 계열화사업의 정착은 국내 육계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3만수 규모의 육계로 계약사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장곡농장(대표 이부환)은 계사가 총 510평 규모에 육계3만수를 키울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계사2동을 부인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난 '82년 육계 5천수를 사육한 것이 육계업과의 첫 인연이 되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은 지금 가격의 등락폭이 큰 육계업의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93년 3월에 육계 1만8천수로 계약사육을 맺으면서 계열화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닭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을 꼽는다. 그래서 사료섭취량의 급속한 감소 또는 음수량의 급속한 증가 등 평소 소홀하기 쉬운 일반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군의 상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계약사육을 하는 데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계열업체는 계약농가의 권익을 최대한 보

### 표1. 장곡농장의 계약사육 성과

◦ 사양설계

입 추 수 수	25,000수	출 하 수 수	23,730수
사 육 일 수	36일	육 성 율	94.92%
출 하 총 중 량	35,520kg	사 료 총 중 량	66,480kg
평 균 체 중	1.50kg	사 료 요 구 율	2.03

◦ 사육비

사 육 수 수 료	35,520kg	140원	4,972,800원
약 품 대	23,730수	85원	2,017,050원
연 료 대	23,730수	40원	949,200원
초 생 추 효 율 (수 당)	20수	250원	(5,000원)
사 료 효 율 (수 당)	5,626kg	240원	1,350,144원
깔 깔 (수 당)	23,730원	10원	237,300원
상 차 비 공 제			(104,520원)
계			9,416,974원

\*사육기간: '93.12.20~'94. 1.25



△ 환기에 중점을 두어 양쪽 변면 상단에 1m간격으로 직경 10cm 주름관을 입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장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1은 장곡농장이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월 25일 출하시까지 사육성적을 나타낸 결과표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만5천수 입추시켜서 육성율이 94.92%의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출하수수가 23,730수당 사육수수료 140원을 합하면 1회전시 4,972,8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연 6회전을 할 경우 29,836,8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 이는 이다.

이 소득은 건물에 대한 감

가상각비와 자기 인건비에 해당되는 소득이다. 여기에 관리 상태나 노력여하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료효율 수당과 초생추 효율수당으로 볼 수 있는데 장곡농장의 경우 급수, 급이 및 온도조절 방법을 자동화 시설로 사료처리량, 성장율, 사료효율 등에 있어 향상을 가져와 1,350,144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사료효율 수당 1,350,144원을 합하면 1회전당 6,322,944원의 총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차비, 폐사율이 5%보다 0.08%가 더 발생한 값은 5,000원을 뺀 비용이 장곡농장의

실질적인 소득임을 알 수 있다.

장곡농장이 1회전당 순수익은 6,213,424원이며, 연 6회전을 할 경우 37,280,544원의 순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때 소득면에서 일반농가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단 연 6회전을 무리없이 하기 위해서 계사내 환기관리와 질병에 대한 예방이 더 없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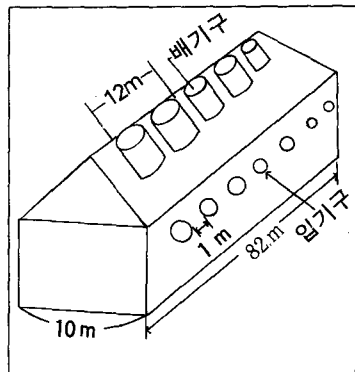
'88년 생산성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에 경험도 없이 발효계사를 시도했다가 IB가 발생해 폐사율이 30%까지 발생되었던 적도 있어 질병예방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즉 감염원의 제거, 감염경로 차단, 감염숙주에 대한 저항력 증가를 위한 백신접종 등은 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환기관리는 '92년 10월에 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시설을 한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사내부의 환기조절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양쪽 벽면 상단에 지름이 10cm인 주름관을 1m간격으로 입기구로 활용하여 신선한 공기

가 자연스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사중앙에 직경이 60cm인 닥트를 설치 배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닥트와 닥트의 간격을 12m로 계사에 모두 6개를 설치해 계사내부를 쾌적하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비결을 공개하였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최대한 환기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환기 방법이다. 환기가 불량하여 상소가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성장 발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장곡농장은 출하체중을 1.3kg~1.5kg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적정 사육수수를 평당 59수를 사육할 수 있게 한 것



〈그림1〉 장곡농장의 환기장치

도 결과적으로 적당한 환기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이제 국제화시대인 만큼 계열업체, 부화장, 생산자간에 협력체제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표2. 환기불량 원인과 피해

환기 불량원인	환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작용에 의한 산소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발생증가</li> <li>• 급온에 따른 산소 결핍</li> <li>• 열원 또는 산화시 발생하는 가스증가</li> <li>• 배설물 및 자리깃에서 발생하는 가스</li> <li>• 먼지 및 사료에 의한 공기혼탁</li> <li>• 고온에 의한 공기 팽창</li> <li>• 관리자의 호흡과 휴먼가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섭취량 감소 및 사료효율 저하</li> <li>• 호흡기계통의 질병 발생</li> <li>• 증체율 저하</li> <li>• 식우증 등의 악습 발생</li> <li>• 신경증상</li> <li>• 록시듬등의 장염발생</li> <li>• 폐사율 증가</li> </ul>

이와 함께 계약농가도 인력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시설자동화를 통하여 적정 규모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열업체는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개발과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양계